



What's new

Connect for Impact

제 54 호 | 2022.02.28

딜로이트의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Contents

딜로이트 CxO 2022 서베이 발표 - 전 세계 기업 리더들 “기후변화 심각성 알아도 실천 어려워”

한국 딜로이트 그룹, 홍종성 총괄대표(CEO) 재선임

사단법인 딜로이트 한마음나눔, ‘법질서유공’ 법무부 장관 표창 수상

딜로이트 - 스프링클러, 디지털 고객경험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

딜로이트 ‘우먼 인 더 보드룸’ 보고서 발표 - 한국 기업 이사회 여성 비율 4.2%, 72 개국 중 최하위 5 개 국가에 속해

딜로이트 CxO 2022 서베이 발표 - 전 세계 기업 리더들 “기후변화 심각성 알아도 실천 어려워”

딜로이트, 21 개국 2 천여 명 C 레벨 설문조사...임원 97% “기후변화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 있었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딜로이트 글로벌의 ‘딜로이트 2022 CxO 지속가능성 보고서(Deloitte’s 2022 CxO Sustainability Report, 이하 '2022 CxO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인용해 “전 세계 기업 89%의 비즈니스 리더들이 기후위기가 존재한다는 것에 동의하며 63%는 매우 우려하는 수준이라고 대답했다”고 전하며 보고서 조사 결과 “기업들이 핵심전략, 운영 및 문화에 지속가능성을 포함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딜로이트가 발표한 2022 CxO 지속가능성 리포트 보고서는 지난 2021년 9~10월 동안 전 세계 21 개국 2,000여 명의 C 레벨 임원들을 설문조사해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 관련 비즈니스 리더들의 우려 수준과 조치 현황을 담았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기업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과 실제 기업들의 실천 정도의 격차를 조사하고 이를 해소하기 있는 방안도 설명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79%의 비즈니스 리더들은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대해 행동할 티핑포인트에 있다고 답했는데 이는 딜로이트가 8개월 전 실시한 설문조사 보다 20%p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88%의 임원들은 즉각적인 기후행동을 취한다면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낙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역시 8개월 전 63% 대비 높아진 수치로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와 낙관주의가 동시에 늘어난 현상에 대해 딜로이트는 전 세계 리더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행동해야 할 필요성을 점점 더 크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기후변화의 영향력이 기업 임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설문조사에 임한 97%의 임원들이 자사가 기후변화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대답했으며, 이 중 절반의 응답자는 비즈니스 모델과 공급망 중단과 같은 운영상에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81%의 임원들이 지난 12개월 동안 극심한 더위, 폭풍, 산불 등과 같은 기후현상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영향을 받았으며 규제기관, 주주, 소비자 및 직원들과 같은 이해관계자들이 기후행동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에 기업 C 레벨 응답자의 3분의 2는 지속가능한 물품과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늘리고 절반 이상이 에너지 효율적이거나 기후친화적인 기계 및 장비, 기술을 도입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대다수가 해외출장을 줄이고 기후행동과 영향력에 대해 직원들을 교육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보고서는 기후 요인을 기업 문화에 녹이거나 리더들의 바이인(buy-in)을 통해 의미있는 혁신을 일으키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해 딜로이트는 지속가능성의 비즈니스 이점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주는 동시에 더욱 가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다섯가지 행동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1. 새로운 기후 친화적인 제품과 서비스 개발
2. 공급업체와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구체적인 지속가능성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하는 것
3. 기후 리스크에 내성을 높일 수 있는 시설 재구축 및 이동
4. 로비와 정치적인 기부에 기후 요인을 고려하는 것
5. 리더들의 보상 체계에 지속가능성 관련 성과를 통합하는 것

딜로이트는 기업의 19%가 지속가능성 모델을 통해 비즈니스 이익을 얻고 있다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인 기업은 위의 5 가지 행동 중 최소 4 가지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1 개 이상 실천하지 않는 기업은 전체 중 35%를 차지했습니다. 선진적인 기후행동을 취하고 있는 기업의 리더들은 ▲2030년까지 탄소중립(Net-zero)달성을 계획 중이며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을 비용 관련 장애물로 보는 경향이 적었고 ▲이해관계자들의 만족도, 전반적인 기업 성과 관련 지속가능성의 비즈니스 기회를 더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푸닛 렌젠(Punit Renjen) 딜로이트 CEO 는 “모든 기업이 기후행동 여정에서 같은 단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두 ‘왜’에서 ‘어떻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기후변화 리스크를 생각하고 지속가능성의 기회를 보는 해안, 비즈니스 전략에 기후를 내재화하는 문화, 리더들의 바이인을 조성하고, 정부 혹은 규제당국을 포함한 제 3 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능력은 리더십의 중요한 지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인규 한국 딜로이트 그룹 이사회 의장 및 ESG 센터장은 “한국 딜로이트 그룹이 작년 한 해 국내 ESG 경영 추진 현황을 진단,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국내의 경우 최근 1~2 년간 ‘ESG 경영’ 도입 확산으로 전 산업군에서 많은 기업들이 이미 탈탄소 전환의 길에 올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ESG 경영 초기단계, 추진 여력 차이 등의 이유로 모든 산업과 기업이 공통적으로 활발한 추진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나, 리더십의 점진적인 변화로 이러한 격차는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딜로이트 글로벌의 ‘딜로이트 2022 CxO 지속가능성 보고서’ 전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가기>

한국 딜로이트 그룹, 홍종성 총괄대표(CEO) 재선임

품질중심 문화·2 년 연속 20% 성장 견인... “인재 선택 1 순위·시장 포지션 1 위 확립할 것”

딜로이트 안전회계법인을 포함하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파트너 의결을 통해 홍종성(52) 총괄대표(CEO)가 재선임됐다고 밝혔습니다. 임기는 오는 6 월부터 2026 년 5 월까지입니다.



지난 2019 년 국내 빅 4 회계법인 최연소 CEO 로 선출된 홍 총괄대표는 재임기간 동안 전 영역에서 퀄리티를 강조하며 뛰어난 서비스 역량을 구축하는 문화를 확립하고, 딜로이트 글로벌 및 아시아 퍼시픽(AP) 내 딜로이트 네트워크간 협업을 통해 2 년 연속 20%이상의 성장을 이끌어내며 발군의 리더십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영환경 등으로 인한 변화의 시기에 지난 2020 년 한국 딜로이트 그룹의 딜로이트 아시아 퍼시픽 합류를 성공적으로 리드하며 퀀텀 점프를 위한 초석을 다지고 서비스 혁신을 도모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홍종성 총괄대표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이 또 한 번의 큰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임직원들이 기회를 주신 것으로 생각한다”며 “회계·컨설팅 영역에서 글로벌 1 위인 딜로이트와 함께 임기 내에 한국에서도 시장내 1 위 포지션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처음으로 가기>

사단법인 딜로이트 한마음나눔, ‘법질서유공’법무부 장관 표창 수상

보호 청소년의 경제 및 진로 교육 프로보노 활동...미래 세대 교육권 보장과 사회 적응력 향상 기여

한국 딜로이트 그룹이 출연한 사단법인 딜로이트 한마음나눔(이사장 백인규, 이하 (사)딜로이트 한마음나눔)이 법질서 확립기여 유공기관으로 선정,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사)딜로이트 한마음나눔은 2013년부터 약 10년간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와 파트너십을 맺고, 보호 청소년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경제 의식을 함양하고 건전한 성장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의 세무, 회계 전문가들은 학교를 주기적으로 방문해 경제윤리와 금융 개념 등 경제 기본지식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경제교육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수업을 진행, 보호 청소년들이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와 가치관을 정립하고 퇴원 후 미래를 건전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경제 교육과 더불어 보호청소년이 퇴원 후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직 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진로 상담 등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사제체육대회, 정심페스티벌 등 연례 행사 시 직접 청소년들과 소통하며 학생들의 정신적 건강과 사회 적응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의 직접적인 사회공헌활동 외에도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자립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자활기금을 지원해 보호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자립에 힘을 쏟아왔습니다.

이에 법질서 확립기여 유공기관으로 선정, 2022년 1월 25일(수) 정심여자중고등학교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대리시상으로 김태섭 정심여자중고등학교장이 표창을 수여하는 전달식에서 백인규 딜로이트 한마음나눔 이사장이 참석해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백인규 (사)딜로이트 한마음나눔 이사장은 “보호 청소년의 자립과 미래를 위한 발걸음에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전문가들의 프로보노 활동이 도움이 된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는 아동·청소년을 위해 적극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전개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역량 있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딜로이트 한마음 나눔은 2016년 한국 딜로이트 그룹의 임직원들이 출연해서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임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청소년 교육, 지역사회 교류를 통한 사회복지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여를 위해 설립됐습니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 임직원의 참여로 조성된 기부금으로 보호종료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 탄광촌 지역 아동·청소년 및 주민들을 위한 환경 개선 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진 왼쪽부터 백인규 딜로이트 한마음나눔 이사장, 김태섭 정심여자중고등학교 교장.

<처음으로 가기>

딜로이트 - 스프링클러, 디지털 고객경험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

스프링클러-딜로이트, 아태지역 파트너십 확장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2월 7일, 현대 기업을 위한 통합 고객경험 관리 (Unified-CXM) 플랫폼 기업인 스프링클러 (Sprinklr, NYSE: CXM)와 서울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 One IFC 빌딩 8 층에서 디지털 고객경험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홍종성 한국 딜로이트 그룹 총괄대표, 허정열(Mike Hur) 스프링클러 코리아 지사장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딜로이트와 스프링클러 협약은 지난 2015년 체결한 딜로이트 컨설팅 US와 스프링클러 간 최초 체결 이후 딜로이트 영국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지난 6여 년간의 양사의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딜로이트와 스프링클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최초로 파트너로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스프링클러가 보유한 통합 고객경험 관리기술(Unified-CXM)을 결합해 인공지능 고객 데이터 분석 플랫폼 기반 초개인화 전략 수립과 마케팅에 대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디지털 고객경험 여정 전반에서 엔드투엔드(End-to-End)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홍종성 한국 딜로이트 그룹 총괄대표는 “코로나 19 이후 뉴노멀 시대에는 고객과 접하는 전 단계에서 보다 연결된 고객경험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양사의 강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여정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허정열 스프링클러 코리아 지사장은 “이번 국내에서 딜로이트와의 전략적인 파트너십은 글로벌 시장에서 스프링클러가 미치는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통해 스프링클러와 딜로이트 양사가 고객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며, 앞으로도 지속된 협업을 통해 고객경험을 혁신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디지털 고객경험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각 사 대표로 참석한 홍종성 한국 딜로이트 그룹 총괄대표(사진 왼쪽)와 허정열(Mike Hur) 스프링클러 코리아 지사장.

<처음으로 가기>

딜로이트 '우먼 인 더 보드룸' 보고서 발표 - 한국 기업 이사회 여성 비율 4.2%, 72 개국 중 최하위 5 개 국가에 속해

전 세계 기업 이사회 여성 비율 19.7% ... 2045 년 '젠더 패리티' 수준에 도달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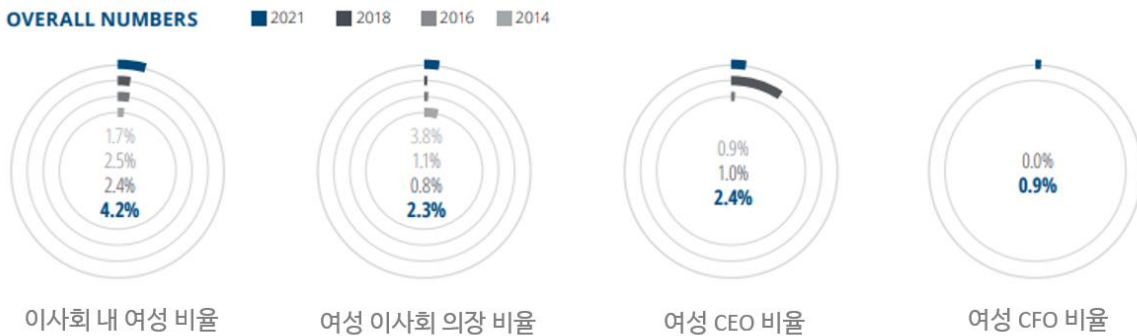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딜로이트 글로벌의 '우먼 인 더 보드룸(Women in the boardroom)*'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일곱 번째로 발행된 이번 보고서는 전 세계 72 개국 전반에서 기업 이사회내 젠더 다양성 현황과 각국의 정치적, 사회적, 입법 트렌드를 분석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이사회 의석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 년 대비 2.8%p 증가한 19.7% 로 나타났는데, 딜로이트 글로벌은 이러한 속도라면 2045 년, '젠더 패리티(Gender parity)'에 가까운 수치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보고서는 전 세계 이사회 의 여성 비율이 2021 년 약간 증가했지만 이사회 의장이나 CEO 로 활동하는 여성 비율은 동기화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보고서 조사 결과 2021 년 이사회 의장으로 활동하는 여성은 6.7%로 2018 년 대비 1.4% 소폭 증가했으며, 여성이 CEO 로 임명된 비율은 5%로 2018 년에 비해 0.6%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딜로이트 글로벌은 여성 CEO 리더십과 이사회 다양성 간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성이 CEO 로 있는 기업의 이사회 내 여성 비율이 남성이 CEO 로 있는 기업에 비해 33.5% 대 19.4%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남성이 이사회 의장으로 있는 기업에 비해 여성이 이사회 의장으로 있는 기업에서도 이사회 내 여성 비율이 19.4%대 30.8% 로 높았습니다. 젠더 다양성이 실현된 이사회일수록 여성을 CEO 와 이사회 의장으로 임명할 가능성 역시 더 많았습니다.

한국의 경우 이사회에 등록된 여성 비율은 4.2%로 글로벌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보였으며 글로벌 72 개국 중 여성의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 5 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하위 다섯 개 국가는 카타르(1.2%), 사우디 아라비아(1.7%), 쿠웨이트(4%), 한국(4.2%), 아랍 에미리트 (5.3%) 순입니다. 한국에서 이사회 의장 혹은 CEO 로 활동하는 여성 비율은 각각 2.3%, 2.4% 로 확인됐습니다.



<표 1> '우먼 인 더 보드룸' 보고서 내 한국 현황

김학범 한국 딜로이트 그룹 리스크자문본부 파트너는 “한국 상장사 이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글로벌 평균 대비 낮은 상황이나 지속적으로 젠더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2020 년 여성할당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사회 내 젠더 다양성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기업들이 여성 임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대비해 여성들이 이사회 및 임원으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강력한 커리어 개발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딜로이트 글로벌의 ‘우먼 인 더 보드룸’보고서 전문은 홈페이지(www.deloitte.com/WOB7)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먼 인 더 보드룸(Women in the Boardroom)**

글로벌, 지역별 및 국가별 분석자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아메리카 지역 및 유럽 및 중동, 아프리카(EMEA) 지역 51 개국, 10,493 개 기업(이사직 176,340 개 이상)의 데이터 세트를 기반으로 함. 분석에는 유효한 이사직과 위원직만이 고려되며 데이터를 보완하기 위해 딜로이트 글로벌은 다양성 할당량 및 기타 다양성 이니셔티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함. 본 보고서는 총 72 개국에서 이사회 젠더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살펴봄.

<처음으로 가기>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